

2021 경북대학교 정책 공모전 참가 신청서

정책명	5-In-One 경북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 개편 방안
정책 개요	매번 수강신청 기간에는 서버 다운, 강의 매매, 수강 정보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수강신청 시스템을 정책으로 제시합니다.

1. 아이디어 소개 및 제안 배경

< 5-In-One 경북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은 수강신청, 수강꾸러미, 수강신청 유의사항 및 매뉴얼, 강의 계획서, 수강신청인원조회 기능들을 통합하여 개편한 시스템입니다.


수강신청은 학생들의 한 학기 대학 생활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강신청 기간에는 매번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폭주하는 유입과 클릭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고, (21.02.08 기준 이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학칙을 위반하는 강의 매매 및 매크로가 성행합니다. 여기에 UI, UX 디자인 또한 오래되어 요즘의 반응형 웹사이트들과 비교했을 때 사용자 친화성이 떨어집니다. 수강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기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용자들은 화면 전환과 정보 탐색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최근 1-2년 사이 전국의 주요 대학들도 수강신청 시스템을 리뉴얼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는 강의 매매, 서버 다운, 매크로 등 현재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려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 지금 당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용자 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학생, 교원, 학교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며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잘 고려한 서울대학교에 올해 도입된 수강신청 시스템 사이트(sugang.snu.ac.kr)를 소개한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2. 정책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수강계획 / 수강신청	수강꾸러미(sugangpack), 수강신청(sugang), 수강신청공지사항(knu.ac.kr), 수강계획 및 인원조회들로 사이트가 분리되어 있음	- 통합형 웹으로 개선
	강의 계획서가 카테고리 나뉘어져 있고, 검색기능이 없음.	- 수업명, 과목코드명, 교수명, 학점, 수업진행형태, 성적부여형태, 잔여적 여부등의 세부검색조건을 추가 - 과목코드의 경우 일부분만 입력해도 검색되도록 개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수강계획 / 수강신청	강의 계획서 표가 알아보기 어려움	-담당 교원/개설학과/수강신청 인원/정원/학점/수업교시/잔여석/재이수/장애학생수강/외국어 강의/수강제한(IT대 수업의 경우 IT대 학생 수강제한)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UI 개선
	수강꾸러미 및 수강신청 전 강의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수업들이 많음	-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수업에 추가요청을 할 수 있는 란을 만듦.
	수강꾸러미 신청시 제한 학점만큼 꾸러미에 담을 수 있음.	- 정원 미달 시 자동신청되는 꾸러미 과목과 관심과목을 분리 - 관심과목의 제한은 30점 - 꾸러미과목의 제한학점이내 - 수강신청 시, 더 편리하게 잔여인원 확인 및 신청가능. - 관심과목은 시간이 중복되더라도 추가 가능
	강의 계획서에 첨부파일 불가능	- 교원이 재량껏 첨부파일로도 업로드 가능하도록 함.
	수강 꾸러미 및 수강 신청시 강의가 중복되는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움	- 과목 선택시 우측에 선택과목의 시간표를 시뮬레이션 해줌 (하단 그림 참고) 
	신청할 강의의 잔여인원을 확인하는 방식이 어려움.	- 꾸러미과목, 관심과목 모두 잔여인원 발생시 (KNUPIA, 수강 앱, 문자)등으로 알림 - 잔여석이 남은 강의들만 모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잔여석이 남은 강의들에 한해 일정시간에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학생들이 강의평가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움	- 기존 YES에서 확인할 수 있던 강의평가를 강의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수강신청 사이트 로그인 연장 불가	- 세션 연장 기능을 추가하고, 분, 초단위로 잘 알아 볼수 있도록 디지털시계 UI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수강계획 / 수강신청	수강신청 방법에 대한 매뉴얼 미비	- 개편 후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제공
	강의를 신청하기까지 강의 계획서를 본 후, sugangpack, sugang 홈페이지에 들어가 강의를 신청하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함	- 강의계획서에서 바로 수강꾸러미에 담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과별로 교양, 기본소양, 일반선택 등 과목에 대한 기준이 달라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부족함.	- 졸업요건을 채울 수 있는 과목을 추천해주는 강좌 추천 서비스 및 챗봇 제공
수강변경	증원 요청 절차 -(학생) YES에서 담당교수 이메일 및 전화번호 검색 후 개인 연락 -(교원) 승인 여부 답장 -(학생) YES에서 정정신청 -(교원) YES에서 승인	- 관심과목에 한정하여 증원 메일을 수강사이트내에서 보낼 수 있게 함. - 교원도 YES, 문자, 메일 모두 확인할 필요 없이 수강사이트 내에서 증원 처리
사이트 환경	PC에 최적화된 환경	- 반응형 웹 > 모바일, PC환경 모두 편리하게 이용가능
수강시스템 개편 과정		- 수강 신청 TF팀 구성 시 학생, 교직원 의견 수렴 - 개편 후 모의 수강신청 시행으로 학생들의 편의제공

3. 정책으로 인한 기대효과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수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강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꾸러미 마감 3-5분 전 서버폭주 문제가 발생, 2020.2.8. 전공과목 수강신청 기준 서버 폭주 문제는 대기열 순번제 도입으로 이전보다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임.) 다만 여기서 제가 제시한 정책의 내용을 시행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5-In-One 경북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 정책에서는 학생의 시각에서 사이트 이용 시 불편한 점만을 반영되어 실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 <-> 교수님들 간에도 수강신청 과정 시 불필요한 절차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교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한다면 학생, 교원, 학교 모두가 더 편리하게 수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